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4 vol.017



Vitality 기업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다



제1회 어울림과 소통展 전시작 / 최행숙 작가

‘생활의 예술화, 예술의 일상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글 경남신문 이문재 부장 / 사진 이상현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이 6월 17일 경남 메세나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최 회장은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누군가 일을 해야했고, 또 회원사들의 격려로 자리를 털컻 맡게 됐다. 그룹의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오랫동안 문화·예술을 지원하며 접했고 나름의 성과와 보람도 얻었다.

그동안 축적하고 실현한 예술의 창의성과 가치를 메세나에 접목시켜 지역 문화·예술의 꽃을 풍성하게 피워보려 한다”고 밝혔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빠른 시간 내에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원의 내실과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가 그동안 지역 메세나의 역할을 정립하고, 또 급격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00개팀 결연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결연팀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팀을 돕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게 과연 올바른 지원인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메세나 지원이 예술단체의 일회성 공연이나 전시 지원 등 경비 지원 수준이라면 곤란합니다. 예술단체가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성을 고양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지원의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술성과 창작성에서 가치를 찾을 계획으로, 예술성 가치 발현에 주목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사의 지원 선호도가 낮은 장르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힘없는 단체, 작은 단체, 묵묵히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외로운 작가에게도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 기간 중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먼저 기업과 예술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자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행했던 제1회 기업과 미술의 '어울림과 소통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의회가 늘 강조하는 기업과 예술의 교류를 통한 문화경영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전시는 전업작가와 회원기업이 1:1 매칭해 작품을 만들고, 전시 후 기업에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진정한 매칭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분야에서는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남A&B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계획으로, 현재 단원을 모집 중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 임직원들의 창의적 감성을 깨우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예술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과 예술이 직접 만나는 이른바 '도·예·만' 사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예술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예술화, 예술의 일상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재능있는 꿈나무들의 발굴·지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남메세나운동의 성공은 회원사들의 참여,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의지가 관건인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간 창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도내 전 시·군을 돌며 그 지역의 상주기업, 출향기업, 예술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우리 문화 창기기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모든 지역에 메세나가 활성화돼 도민 모두가 편중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마 많은 기업이 자기 고장 문화예술을 키우는 데 인색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들에게 기회와 채널을 제공한다면 지원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술단체의 코디네이터'로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전시장과 공연장에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이들이 창작의지를 끌어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을 맡기 전에도 회원사로 참여했는데, 혹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 사무국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현재 회원사가 200개가 넘고, 내년에는 25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관리뿐 아니라 결연단체도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회원사·결연단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무국을 꾸렸습니다. 협의회는 상하 지휘가 아닌 전문적 수평적

업무 영역입니다. 모두가 고유의 전문 분야를 담당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사 간 소통도 중요한 문제인데, 회원사 간 정보 교류와 친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메세나 활동이 기업과 예술단체에만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키우는 일은 어느 한 단체가 독점하거나 홀로 가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지역 대학이나 기관 등과 MOU를 체결해 문화예술 지원의 틀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회원사와 문화예술단체, 지자체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연말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항목이 '기업,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다'였습니다. 이는 메세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공유가치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는데, 예술과 기업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메세나 활동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비전을 열어주고 발전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공유 가치가 됐습니다. 이 가치는 기업과 예술단체뿐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정신적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회원사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예술분야 투자를 너무 쉽게 줄이는 것은 지역민과 후대에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회원 기업과 경남도에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추경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회원사와 예술단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애정 어린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문화예술을 잇는
징검다리입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4 vol.017

C o n t e n t s

Special Theme	2014 정기총회 및 임시의사회	06
	2014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	07
	2014 기업과 만나다, 제1회 어울림과 소통展	09
	직장인, 꿈을 이루다 경남A&B오케스트라	12
	문화국가로 가는 디딤돌, 메세나법	14
Love in Mecenat	새터민과 함께하는 하모니콘서트	18
	남해어르신들과 함께한 행복음악회	19
	아름다운 동행 ① / 범한모터스 + 경남관악단	20
	아름다운 동행 ② / 김해the큰병원 + 김해미술협회	22
	아름다운 동행 ③ / 환웅정공 + 동락문화예술연구회	24
People in Mecenat	문화CEO 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	26
	경남문화예술을 위한 조연, 문화옹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30
	예술과 함께하는 창원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	32
Fun in Mecenat	미술관 탐방 ‘문신미술관 아트상품전 - 달과 별 사이’	34
	결연단체 소식 - 중요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넛수륙재	38
	신규결연단체를 만나다 - 김해미술문화연구회	39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씨 근로자합창단	40
	빛과 물의 도시, 진주 문화탐방을 떠나다	42



발행인 최재호 / 편집인 박덕운 / 진행 김은아 / 발행일 2014. 7.30
 발행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3 3층 Tel_ 055. 285. 5611 Fax_ 055. 274. 1923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_ 055. 296. 4995



2014 경남메세나협의회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어제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

글 경남메세나협의회 / 사진 이상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경남메세나협의회는 2월 20일 저녁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지난해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올 한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2014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대표, 예술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회장 인사말씀, 도지사 축사, 201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014년도 사업계획발표와 임원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아리랑의 혼(魂)”을 주제로 아이온 앙상블의 특별공연이 열렸다. 밀양소재 클래식 단체인 아이온 앙상블은 우리 전통 음악인 삼대 아리랑과 본조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바이올린, 소리, 대금 등 동서양 악기의 조화로운 연주로 들려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2013년도 사업결과 보고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

는 창립 6주년을 맞은 2013년 말, 205개 회원사와 103개 팀 결연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술단체에 지원된 지원금도 한해에만 총 22억원이 되어 경남 문화예술 지원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렸다.

2013년도 결산승인에 이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이 이뤄졌다. 강태룡 회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기업과 예술의 결연을 120개 팀 이상으로 늘려 더 많은 예술단체가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욱 폭넓은 문화 활동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과 젊고 새로운 예술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새해 비전을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임원선임이 이어졌다. 경원벤틱(주) 공경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이 유임됐고, 신임 감사로 (주)ONE 이종호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또한 6월 17일 진행된 2014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선임된 최재호 회장은 “창립 7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재도약의 시기에 회장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남 경제와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그 혜택이 경남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임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임원선임에서는 경남에너지(주) 강만호 부사장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8명, 감사 2명, 이사 23명으로 총 34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꿈의 100개 팀 결연을 달성한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올해 5월말 66개 팀 결연을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결연 신청을 받고 있다.



2014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토론의 장

글 경남메세나협의회 / 사진 이상현

봄내음을 물씬 풍기던
지난 3월 27일 오후
'경남메세나예술단체 워크숍'이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다. 메세나 결연을 희망하는
예술단체에 소속된 60여 명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의 문화예술 종사자와 기업
들의 결연사업에 대한 이해 및 단체의 자생력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바
람직한 메세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결연기
업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펼
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강의 내용은 결연사업의 이해, 기업과의 관계 관
리, 자금집행과 정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특히 예술단체들의 취약점인 자금집행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약서 이행사항과 정산
보고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했다.

박덕운 경남메세나협의회 전무는 “메세나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업
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
련됐다. 또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함에 따라 문화예술 후원이 늘어날 전망이고, 아
울러 기부금의 합리적·효율적 사용이 더욱 요구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며 “협의회는 자금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기업과의 교류협력 강화 유도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칭펀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문
화예술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홍보와
경영의 중요성, 서류정리 등의 중요성을 재차 강
조하며 참가한 많은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조
언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창열 경남메세나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업운
용주체, 예술단체 선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매칭펀드 지원절차, 사후관리 및 평가 등 매칭펀
드 운용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어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안태명 계장이 투명
한 집행과 효율적인 정산관리를 위한 2014년 회
계실무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2014년
경남메세나 예술단체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2014 기업과 만나다

제1회 어울림과 소통展

글 장경국 / 사진 이상헌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됨.”

어울림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2014년 6월 24일 창원 성산아트홀 제 1전시장에

기업과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바로 이 어울림의 결실을 서로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가 경남 문화예술진흥원과 경남메세나협회의 후원으로 기획한 ‘2014 기업과 만나다. 어울림과 소통展’을 기념하며, 많은 예술가와 기업인 그리고 이를 축하하는 귀빈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 천원식 회장은 “예술가 1인과 17업체가 매칭하여 예술가의 창의적 사고와 소통하며 기업인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됨은 물론이며, 예술이 기업에 먼저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번 행사가 경남 미술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예술





가로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동안 경남에서도 선각자적 기업문화를 가진 여러 기업들이 예술단체나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먼저 기업을 찾아가 문화적 창작물을 먼저 제공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경남전업미술가협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예술작품의 기업체 기부 행사는 예술계의 혁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예술계를 지원해왔던 기업체들에게 예술가 개개인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충실하

게 담아냄과 동시에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살린 10호~20호 크기의 작품들을 매칭을 통해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전시회에 참석한 미즈맘 여성병원 설익석 원장은 “우선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고, 병원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산모들도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안령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참여소감을 밝혔다.

안령희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작품을 통해 재능기부를 하게 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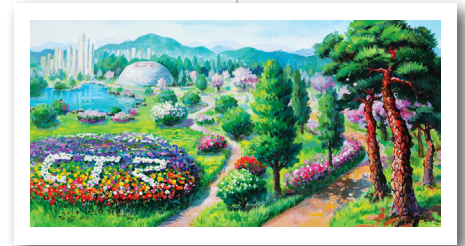
작가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그림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경남메세나협의회가 발족한 지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경남은 이제 기본적인 메세나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메세나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어울림과 소통전이 바로 그러한 움직임의 마중물이 되어 향후 경남의 문화발전과 메세나활동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루어 내는 데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주)센트랄

김두용 작가



▲ 센트랄 가는 길



(주)센트랄 / 강태룡 회장

딱딱한 제조 현장의 모습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회사에서 '센트랄 히스토리' 라는 전시 공간을 디스플레이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작가님의 센트랄의 미래를 표현한 작품으로 '센트랄 히스토리' 공간을 완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센트랄 가는 길'은 센트랄의 미래 모습이 자연 친화적이고 직원들의 삶과 직장의 균형이 잘 맞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잘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두용 작가

'센트랄 가는 길'은 더욱 발전한 센트랄의 모습을 현재의 센트랄과 결부시켜 표현한 작품입니다. 친환경 센트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있는 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의 작품 성향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전시 이후에 각 기업에 전시될 작품들은 기업 뿐 아니라 사원들 모두에게 시원한 생수같은 존재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림과 소통展

경원벤틱(주)

김경미 작가

i n t e r v i e w



▲ 빛의 정원 - 1402



경원벤틱(주) / 공경열 대표이사

저희처럼 쇠를 다루는 기업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함께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희에게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작가님과의 인연이 계속되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저희도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많은 재료들을 조각품을 제작하는 작가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작가

혼자 창작에 대해 고민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예술작품의 수요자가 되는 기업의 오너를 만나는 일은 흔히 일반화 되어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업작가회에서 개최한 '어울림과 소통전'과 같은 전시 형태는 '물의 흐름이 늘 한방향일 이유는 없다'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적극적으로 기업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함으로써 유대를 증진할 수 있었다는 데서 그 발상과 취지가 매우 창의적이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경원벤틱과의 인연을 갖게 됨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2014 기업과 만나다

꿈을 현실로 바꾸다

경남 A&B오케스트라(Arts&Business Orchestra) 창단

어른이 된 지금 새로운 꿈을 꾀본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무대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내 모습을... 아니. 이건 어른이 된 후 새삼 꾸는 꿈이 아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몽상으로 간직한 일이다.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실현 가능성 없는 헛된 꿈. 하지만 여기 꿈을 현실로 바꾸는 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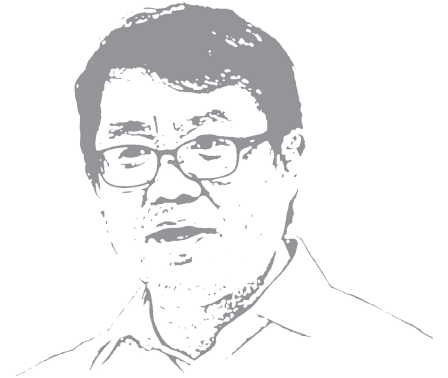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즐겁고 화합하고 직장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12월 연주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가시간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살피우는 여러분 모두 예술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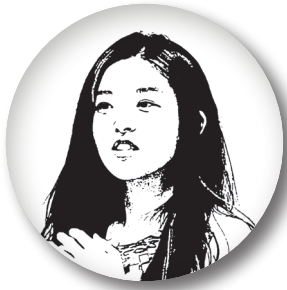
음악감독 차문호 경남대 교수

ORCHESTRA?

경남메세나 회원사 직원들 가운데 음악적 소질이 탁월한 이들을 대상으로 A&B 오케스트라가 구성됐다. 소질보다는 관심이 탁월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듯하다. 평소 악기 하나 다루고 싶은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연주자들이 교육을 맡았다.

(주)센트랄을 주된 후원기업으로 한 A&B 오케스트라. 실력은 미흡하지만 기백만큼은 대단하다. 올해 12월 연주회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한 이들이 차문호 교수와 허준 지휘자의 손끝에서 어떻게 변해갈지, 자못 기대된다.





“늘 관객의 입장이었죠.
한번쯤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군대서는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음악 잘하는 사무직(?)이
되고 싶습니다.”



“색소폰을 배우는
장모님께서 사위와 연주하고
싶다고 하셔서 도전해봅니다.”



“버킷리스트를 정리하다가 악기를
하나 배워야겠다 싶더군요.
젊은이들과 인맥도 쌓고 싶구요.”

아름다움이란 뛰어난 조화의 산물이다

2014년 7월 2일, 오합지졸들의 첫모임이 있었다. 경험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배우고 익힐 것을 다짐하고, 초보자들은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음악적 끼와 배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수업 중에 들었던 한 강사의 말이 생각난다. “목적은 음악이지만 인간과 인간의 화합입니다. 말로써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기의 화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난 이들, 낯설고 서먹한 기운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강한 의지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12월, 우리는 경남 A&B 오케스트라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연주와 만날 것이다.



문화국가로 가는 디딤돌

비경제 부문 활성화 장치로서의 메세나법

글 한국메세나협회 이충관 사업국장



메세나법

진 국민의 가슴을 멩들게 한 세월호 사건도 우리의 사회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과 투자 부재가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이지만, 산업 우선의 국가적 기조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진단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 때문에 요즘 '비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시급한 과제로서 정부는 교육, 문화, 사회 분야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산업 분야와는 달리 문화예술 분야에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가 곧 산업이고 경쟁력인 시대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경제 논리에 밀려 줄곧 외면당해 왔다. 그동안의 경제지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은 국가 정책에서 후순위에 해당하는 분야였다. 그러나 '비경제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메세나법 제정의 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른바 '국민 삶의 질'과 '의식'의 관점이다.

구미의 선진국들은 경제규모에 걸맞는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사람을 중시하는 품위있는 사고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다.

세계 경제 규모 15위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부작용을 크게 겪고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OECD 34개국 중 행복지수 순위 32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메세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던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률의 정식 명칭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금번 법률 제정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한국메세나협회가 재계와 예술계의 뜻을 모아 입법지원 활동을 추진한 지 5년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번 국회 들어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조세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 예술후원활동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는 '비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 중 하나로서 이 법률을 주목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경제 부문의 실패가 경제 부문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숨막히는 경쟁에 지치고, 물질만능 사회의 빈부격차에 신음하고, 계층간 갈등 속에 불신이 팽배한 사회구조로는 과거와 같은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정서와 삶이 건강해야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를 어루만지고, 힘들고 지친 삶에 휴식과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문화의 수준이 높아야 사회 전반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경제와 더불어 문화가 강하다는 점이다. 이미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력은 탄탄한 기초체력에서 비롯된다. 그 체력은 문화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길러진 결과물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음악축제나 영국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시장처럼 문화산업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산업이고,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분야이다. 그 토대가 되는 기초예술에 대해 기업 지원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그동안 민간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기초예술이라는 비경제 부문이 국가경제의 한 축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지원을 확대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법제도를 손질하여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정부는 '문화융성' 과제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문화재정을 국가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서 세입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자금이 예술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세수감소액보다 기업의 지원이 더 늘어나고, 예술계의 발전을 통해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정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예술지원액에 대한 파격적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02년 2억 유로이던 예술기부금이 2008년 6억 2천만 유로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이 법률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동안 반대논리로 작용해 온 조세형평과 세수감소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부금 중 사회복지분야가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고작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기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세나법은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비경제 부문이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국가의 경제력과 문화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과거와 같은 일방통행식의 경제 발전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메세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입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阿 羅 紅 蓮
아 라 홍 려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연씨가
700여 년 만인 이듬해 꽃을 피웠다.

고려시대의 연꽃인 아라홍련은 7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지금의 다양한 연꽃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새터민과 함께한 세대공감의 시간

두번째 하모니콘서트

글 장경국 / 사진 이상헌

창원시그린여성합창단의 권안나 지휘자는 음악이 만들어내는 감동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날 열린 공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하모니콘서트이지만 특별히 새터민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에 우리들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며 50여 개의 촛불로 어둠을 밝혀준 김효근 곡 '내 영혼 바람되어'의 하모니가 감동적인 서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경남리틀싱어즈의 Let it go와 Do Re Mi Song 공연은 감쪽한 어린 아이들의 합창과 율동으로 부모와 함께 객석에 자리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대에서는 짜임새 있고 안정된 공연을 보여주면서도 퇴장할 때는 왁자지껄 여지없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이

들의 순수함에 관객들은 매료되었다.

새터민 가수 이소연이 열창한 밀양아리랑은 우리 밀양아리랑과는 멜로디와 가사가 조금씩 다른 북한의 밀양아리랑이어서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고, 객석을 메운 새터민 관객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공연이 되었다.

창원시 은빛소리합창단은 최고령자가 86세인 실버합창단으로 음악이 세대를 뛰어넘어 감동과 공감을 주는 매개체임을 느끼게 해 준 멋진 공연이었다. 어어진 소프라노 성정하와 일렉첼리스트 류린의 공연은 성악과 연주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수준 높은 무대였으며, 복있는 사람들 남성합창단의 무대는 색다른 퍼포먼스로 기억에 오래 남는 공연이 되었다.

“창원시그린여성합창단은 합창을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어 스스로 합창을 성찰

리틀싱어즈에서 실버합창단까지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합창과 연주 그리고 퍼포먼스가 관객과 어우러져 일체감을 자아내는 멋진 공연이었다.

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합창사랑이 이웃과 사회에 밝은 에너지가 되길 희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권안나 지휘자의 말처럼 듣는 멜로디와 보는 퍼포먼스가 잘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공연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부르며 전 출연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대위로 등장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관객들과 어우러지는 감동의 클라이막스가 연출되면서 모두가 하나되어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감동이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타고 흐르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느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세대공감 하모니콘서트가 창원의 명품 예술브랜드로 자리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 내년이 기다려진다.

HARMONY CONCERT II



6월 어느날, 남해요양원에서 열린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의 행복음악회 덕분에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메세나 공연이 포근한 유월 어느 날 남해요양원에서 ‘유니크 클라리넷 앙상블’과 함께 열렸다. ‘유니크 클라리넷 앙상블’은 클라리넷 4중주로 이루어진 앙상블 팀으로, 관악기 특유의 음색에 타악기를 더하여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간단한 리허설 소리에도 관객들이 하나둘씩 모여 박수소리 속에서 공연을 준비한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관중 맨 앞자리와 클라리넷 주자와의 거리가 1미터 남짓이라 관중과 연주자가 같이 호흡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The Circus Bee’를 시작으로 한 시간 동안 쉽게 보기 힘든 멋진 클라리넷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은 세 부분의 스테이지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오

프닝용 연주음악, 두 번째는 영화음악, 마지막 스테이지는 대중가요를 준비하여 클라리넷을 통해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들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양희은의 ‘아침이슬’이 나오자, 그때부터 연주자와 관객, 그리고 음악은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이미 한 공간 안에 모두가 친구가 되어 있다. 어르신과 연주자들은 음악을 매개로 서로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유니크 클라리넷 앙상블은 ‘칠갑산’, ‘소양강 처녀’, ‘무조건’ 등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신나게 연주하였고, 어르신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흥이 묻어나기 시작한다. 몸이 불편하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를 엇갈리게 치기도 한다. 이 곳은 젊은이들의 콘서트장 열기 못지않다.

남해 어르신들과 함께한

행복 음악회

글 라인엔터테인먼트 예술총감독 배우민 / 사진 경남메세나협의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멀끔히 바라보는 눈빛들이 따갑다. 저기 뒤에서 어느 한 분이 외친다. “여러분들에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두 곡을 더 연주하고서야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실 연주자들은 연주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위해 연주를 한다. 그런데 이날은 되려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행복한 표정은 연주자들에게 힘을 주었다. 연주 마지막에는 연주자들이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남해에서 돌아오는 길.. 남해의 향기로운 꽃내음은 쉽게 코 끝을 떠나지 않았고,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소리는 한참동안 눈 앞에 아른거렸다.



범한모터스 오픈식

웅장한 관악과 함께한 새로운 출발

글 경남메세나협의회 / 사진 이상현

공기압축기 제조업체로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 범한산업이
닛산자동차 공식 딜러인 범한모터를 새롭게 설립했다.
그 시작의 자리에 경남관악단이 함께 했다.



◀ 범한모터스 정영목 대표와 경남관악단 김정호 단장

경남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범한산업(대표이사 정영식)이 지난 4월 1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닛산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경남관악단(단장 김정호)의 웅장한 연주로 시작된 오프닝 행사에는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대표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수입차 전시장 밀집지대에 자리 잡은 닛산 창원 전시장은 연면적 약 529㎡, 2층 규모로 최대 5대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인 PC와 닛산 카페, 릴렉스 룸 등 다양한 고객케어 시설도 마련했다.



전시장과 함께 2개의 워크베이를 갖춘 닛산 창원 서비스센터도 같은 위치에 문을 열었다. 소음과 공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 서비스센터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첨단 정비기와 수리 장비를 배치해 빠르고 정확한 수리가 가능하다.

정영목 범한모터스 대표는 “닛산 창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는 풍부한 경험의 딜러 서비스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해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구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닛산 고객 케어

프로그램(Nissan Customer Care Program)’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내빈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경남관악단의 축하연주가 열렸다. 경남관악단 김정호 단장은 “범한산업과 오랜 시간 함께한 결연단체로서 자회사 설립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연주를 준비했다”며 연주를 시작했다.

관악단 단원들은 비틀즈 메들리와 넬라 환타지 아 등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명곡들을 선곡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관악 연주 덕분에 범한모터스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경쾌하게 첫발을 내딛었다.

기 업 과 문 화 예 술 의 아 름 다 운 동 행





김해 the큰병원 [숯갤러리] 개관 기념전

숯갤러리, 김해 예술의 허브를 꿈꾸다

글 경남메세나협의회 / 사진 이상헌

지난 6월 13일 김해시 전하로에 위치한
척추·관절 전문 의료기관 김해the큰병원에서
문화나눔공간 '숯갤러리' 개관식이 열렸다.



◀ 김해the큰병원 이동환 원장

병원 6층에 마련된 숲갤러리에는 식전부터 많은 이들이 모여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 the 큰병원과 3년째 결연을 맺어온 아르끼첸버오케스트라에서 갤러리 개관을 축하하며 김해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숲갤러리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다.

연주가 끝나고 개관식이 시작되었다. 이동환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김해미술협회 윤병성 회장과 회원들, 김해시문화관광사업소 공영주 국장, 광득건설 최광주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100여 명 모인 가운데, 덕담을 가득 담은 축사가 이어지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동환 원장은 “창원the큰병원에서 숲갤러리를 운영한 지 4년 만에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김해 숲갤러리도 환자와 지역민, 지역



[주변이야기] - 조경옥(김해미협 자문위원)

- 숲갤러리 위치
전하로 304번길 김해the큰병원 6층
- 관람시간
평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30분,
일요일·공휴일 휴관
- 문의 055)340. 0900

예술가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또한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개관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처음 김해the큰병원과 결연을 맺은 김해미술협회 윤병성 회장은 “김해 숲갤러리는 김해미협 회원들이 김해미술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줄 공간”이라며,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미술심리치료를 하는 등 병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개관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한지공예, 서각작품 등 24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어 7월 달에는 조경옥의 ‘주변이야기전’이 열리는 등 매달 김해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가 이어져 김해지역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채워 줄 예정이다.

기 업 과 문 화 예 술 의 아 름 다 운 동 행





환웅정공 가족과 함께한 <동락어울림>

웃음 가득한 문화나눔의 시간

글 경남메세나협의회 / 사진 이상헌

지난 6월 27일 오후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동 2층에서
환웅정공 직원 가족들과 동락문화예술연구회가
미술체험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락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의 행사는 동락 회원들이 환웅정공 직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늦은 시간 발걸음을 해준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멋진 미술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훈남 미술사의 장난스러운 미술쇼로 체험현장은 웃음과 감탄의 연속이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중국 전통 미술 “변검” 공연도 인상적이었다. “취릭” 손짓 한번에 가면 이 바뀌자 꼬마 아이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화려했던 미술 공연 후 <고무신 만들기>와 <부채 만들기>로 나누어 테이블에 자리한 직원들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에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는 듯한 눈치였다. 그런데 붓을 잡고 신발과 부채에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모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 뿌듯한 직원들은 연신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품을 담기 바빴다. 짧고도 굵었던 고무신 패션쇼는 단연 이날 행사의 꽃이 되었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 회원인 창원에총 박금숙 회장은 “동락은 작가들의 창작활동 뿐 아니라 재능의 나눔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단체입니다. 결연기업과 함께 매년 1회 미술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 동락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창작활동의 연속이지만, 우리에게 수혜를 주는 결연기업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겠지만, 이번 체험 행사와 같이 직원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의 순화나 문화를 보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세나를 통해 결연을 맺고 함께 소통해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환웅정공 직원들은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미술공연에서부터 직접 그림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짜임새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조카들, 가족들과 같이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체험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오늘 체험의 느낌을 전했다.

각자 완성한 작품을 손에 들고 기념촬영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에도 행복한 웃음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메세나 결연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한 시간이었다.



인생은 예술이다



문화CEO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

글 진강숙 / 사진 이상현

셋내가 진동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느 바닷가처럼 갯내음이 물씬 풍긴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주)한국야나세의 웅장한 크레인. 압도된 마음은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금방 풀린다. 마치 학자의 방 같이 소박하다. 아니 어느 예술가의 방이다.

사업도 예술이다

‘고향 사람은 쓰지 마라.’ 기업하는 이들 사이에 전해지는 속설이다. 집안 내력 속속들이 알고 ‘아는 안면’의 전제 하에 생겨날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겠다. 하지만 이 말이 속설일 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고향땅에서 회사를 일구고 키워가는 기업이 있다. (주)한국야나세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한 우영준 회장의 답은 간단하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깐.” 이게 전부다.

1991년 6월, (주)한국야나세가 출범했다. 일본 야나세 본사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이 창업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었다. 불꽃 튀는 현장의 일도, 판매를 위한 영업도, 수출입을 위한 통관 서류도 직접 만들

며 1인 3역을 했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일본 시장을 뚫었다. 까다롭기로 유명해 세계 시장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일본 시장을 뚫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고객도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진심을 다해 솔직하게 다가가고, 요즘 유행처럼 으리(으리)를 지켰다. 그 중에서도 거래 기업에 대한 의리, 한술밥 먹는 1,000여 명 가족들에 대한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더운 여름, 가죽옷을 입고 불꽃과 씨름하는 직원들 생각에 에어컨도 잘 켜지 않는다. 회사 이익은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돌려준다. 내가 일한만큼 나의 성과급으로, 사원복지로 환원되니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긍심 또한 높다.

문화CEO

키다리 아저씨

그는 평소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고향 인근 지역(진동, 진북, 진전면과 구산면)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폐교 위기의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진동초등학교, 진전중학교, 마산삼진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교육기부도 하고 있다.

자칫 위축되기 쉬운 읍면지역의 각종 문화, 체육활동 각종 행사에도 늘 (주)한국아나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지역학교와 지역민, (주)한국아나세 임직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우영준 회장. “그게 사는 재미고 사업하는 재미지요.” 하며 웃는다.

우리 지역에서 미술협회에 등록된 작가만 2,000명이 넘습니다. 미등록 작가를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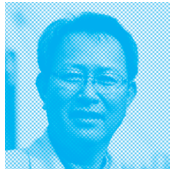
그 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입주해 작업하는 특별한 건물 공간도 상상해봅니다.

층층마다 연주하고 그림 그리는 작업실과 시 한 수 읊조리고 연주·전시하는 공간까지..... ”

▼ 우영준 회장의 소장품으로 꾸며진 [준갤러리]





▲ 사무실 옥상 공간을 가득 채운 우영준 회장의 소장품

환쟁이 우영준..... 경남 미술계의 대부

그는 환쟁이다. 재미삼아 붓질 몇 번 한 게 아니라 전공자다. 공모전 출품에,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자신의 그림을 팔기위해 백화점 문을 두드리며 예술 활동만으로는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그가 후원삼아 구입한 작품만 500여 점. 지역 예술가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작품을 구입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겹겹이 기대어 포개진 500여 점의 작품들은 곧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 같다. 슬리퍼 신은 동네 아낙들이 아이 손잡고 저녁마실 나와 그림구경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그림이 우영준 회장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진동 바닷가 어디쯤이 아닐까?
(주)한국야나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열거하기

조자 벽찬 지역후원과 지역의 문화예술 후원에는 (주)한국야나세 직원들의 열정과 땀이 스며 있다고 믿는 우영준 회장. 그의 고민은 우리 지역의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놓고 작품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혼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뒷바라지 하는 일에 후원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고뇌하고 노력한 작가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은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의 문턱은 높지만 하다. 그래서 우영준 대표는 발길 닿기 좋은 미술관을 강조한다.
기차를 기다리며, 약속한 친구를 기다리며 잠시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

는 미술관이다. 오랜 작업으로 지우려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 손톱 밑 물감 때가 자랑스러운 그들과 그 또한 작가인 우영준 회장은 오늘도 문화예술 이야기와 소박한 한 잔 술로 하루를 채운다.

경남 윈드오케스트라, 마산예총, 3.15기념사업회, 박선희 판소리와 메세나 결연을 맺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이야기가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놀라운 스토리텔링 기술을 지닌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 그와 만나면서 사람의 인생도, 기업경영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가는 예술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취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제각각의 가슴속에 숨겨 놓은 끼가 들썩인다.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인터뷰

지역 특성을 살려야 경남 문화 예술이 발전한다

경남의 문화 예술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일까.
경남 문화 예술이 더욱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을 인터뷰,
경남 문화 예술의 ‘길잡이’를 부탁하였다.

김동호 위원장은 영화인과 예술인 등 각계 문화계 인사에 ‘정신적인 지주’로 통한다. 그는 영화진흥공사 사장과 초대 예술의 전당 사장, 문화부차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PIFF)을 거쳐 지난해 7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의 4대 국정기조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계와 정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이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만큼 그의 조언에 대한 무게감도 남달랐다.

대뜸 본론부터 이야기 했다. 경남의 문화 예술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지난 3월 말 경남을 방문, 도내 문화계의 고민을 들었다. 운동화를 신고 하루 만에 창원·김해·진주·통영을 다니며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술한 애로를 일일이 메모하였다. 경남 문화 예술의 지식은 차고 넘쳤다.

“경남은 가야문화권에 속해 있어 예부터 오랜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가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자부심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특색을 살리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지. 경남의 각 시군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통영 국제음악제를 제외하고는 지역 잔치에 불과하지 않아요.”

김 위원장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다. 석달전 경남 일대를 방문했던 기억이 또렷하다고 말했다. 경남 문화 예술 발전에 복안은 무엇일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좋은 예로 보입니다. 항도 부산과 영화에 특별한 인연이 없었지만 민관, 시민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이끌었습니다. 영화제로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도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에든버러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3주간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쳐받은 이들의 정신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1947년에 시작된 축제이지요. 글라인드번 오페라단 행정관이었던 루돌프 빙과 몇몇 사람들이 영국 정부와 에든버러시의 후원을 받아 이 축제를 기획하였지요. 이렇게 시작된 에든버러 국제

[문화가 있는 날] 이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기관마다 할인율 및 참여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페스티벌(F)은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연극, 춤, 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러 나라의 공연팀들을 초청하여 꾸미는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변방 에든버러가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 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예술의 발전은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처럼 지역민이 주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낮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남의 문화 예술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의 문화 예술계 종사자는 정말 위대한분들입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이 서울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문화 예술 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같은 문화 예술 지원기관과 단체에 고마움이 큼니다. 메세나 활동을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남의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경남 문화 예술의 발전에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President Committee for Cultural Er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





예술과 함께하는
창원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

글 진강숙 / 사진 이상현



“법정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양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선을 쌓은 집안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선이 아닌 것을 행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뜻의
 『주역』 경문인데,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팬스레 어깨가 움츠러드는 곳. 창원지방법원을 방문하기 전, 법정에 대해 지금껏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그러한 편견을 깨기에 충분하다.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다. 취임 직후 그는 쇠창살을 없애고 법정마다 예술작품을 걸었다. 특히 소년법정과 이혼법정은 마치 갤러리를 꾸미듯 더욱 신경을 썼다. 치유적 사법절차가 필요한 소년법정은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 헌신을 형상화 했고 이혼법정은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정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의 의미를 교감하면서 누그러진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화해의 실마리를 찾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혁 명

몇 해 전, 해외 연수차 복유립을 방문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원목바닥과 벽면에 예술 작품들이 가득 채워진 법정의 모습.. 그 충격과 감동을 창원으로 옮겨왔다. 가급적 우리 지역작가들의 작품들로 채워갈 예정인 창원지방법원 21개 법정과 조정을 위한 준비 절차실 10여 곳. 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술 작품이 법정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용서와 화해를 부르는 메신저가 되기를 염원하는 강민구 법원장의 마음이다. 실로 혁명이라 불릴만한.

화 해

소년법정에 걸린 사진 작품 아래에는 ‘믿음직한 넓은 잎이 있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내 생애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란 글귀가 적혀 있다. 지금,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어느 아이는 이 글귀와 사진을 보고 있을 것이다. 잿빛 쇠창살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글귀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가슴에 품기 시작한 아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히 쏟아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이다. 실제로 민·형사 소송으로 법원을 찾은 이들도 싸움기를 걷어내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 음악과 차, 그림과 글귀 등 그의 다양한 시도와 오랜 노력의 결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늘 푸른 청년, 강민구

컴퓨터 모니터 네 대가 연동되는 강민구 법원장의 방은 사법정보화 세계 2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한민국 전자소송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소통하는 법원과 열린 재판을 알리기 위해 『함께하는 법정』을 집필하고 경직된 법정 분위기를 예술 문화로 부드럽게 변화시키려는 그의 생각은 늘 자유롭다. 그런 그가 늘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탐구심, 열정이 사라져 노인이 되는 것이다. 이 셋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젊은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법원의 권위보다 따뜻함을 선택한 법원장.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적 심미안을 지니고 좋은 생각을 품은 많은 이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남자, 지역 예술인을 먼저 생각하는 메세나인. 얼핏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지금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사는 사람을 만났다.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인 사람.. 강민구.

문신미술관 시립화 10주년 기념
아트 상품전 '달과 별 사이'

문신의 예술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이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립화 10주년을 기념하는
아트 상품전
'달과 별 사이'를 연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혼을
일상 생활에 승화시킨
다양한 아트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글 한만선
사진 이상현·문신미술관 제공





그곳의 공기는 달랐다. 부드럽고 기분 좋은 온기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차가운 인상을 받는

여느 전시회와는 분명 다른 느낌이다.

대중적인 아트 상품 전시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달과 별 사이’란 전시회 이름에 눈길이 간다. ‘달’은 문신(MOONSHIN)을 가리키고 ‘별’은 아내 최성숙(崔星淑) 문신미술관 명예관장의 이름에서 따왔단다. 그제서야 알았다. ‘문신의 예술 작품을 최 관장이 아트 상품으로 만든 전시회’란 뜻을. 처음 전시회장에 들어서면서 따뜻함을 느낀 이유도 알았다. 작고한 남편을 향한 최 관장의 사랑과 그리움이 아트 상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트 상품은 도자기와 넥타이, 스카프, 그림액자, 조각 미니어처, 주얼리, 쿠션, 부직포 가방, 학용품 등 무려 200여 종에 달한다. 최 관장은 이번 전시에 유독 욕심을 냈다고 한다. 도록에 없는 우산은 전시회 직전에 완성하여 겨우 진열할 수 있었다. 전시장은 내로라 하는 세계 유명 박물관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예술가 부부 이름을 딴 전시회

가는 선과 투명한 색의 채화는 넥타이, 스카프, 쿠션 등 천을 이용한 소품이라면 어디에도 어울린다. 여러 가지 채화를 구성하여 인쇄한 테이블보는 맑고 시원한 수채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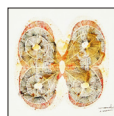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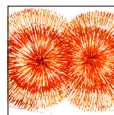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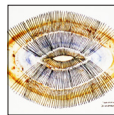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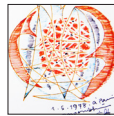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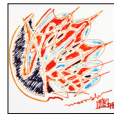
부부는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한다. 최 관장이 남편의 조각을 찾잔 안에 그려놓고 드로잉은 보석으로 만들었다. 문신은 미래를 예견한 것일까. 그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연필 또는 펜을 이용한 선(線) 드로잉을 그려왔다고 한다. 60여 점에 이르는 이런 드로잉들은 조각이나 채화를 위한 밑그림으로 그려졌지만 마치 문신 주얼리를 위해 디자인 된 것 같다.

문신은 접시와 가방에 이름도 빌려줬다. 넥타이는 예술성과 대중성이란 두 가지 초점에 맞춰 제작하였다고 한다. 문신의 작품을 그대로 인쇄하여 예술성을 살린 것과 최 관장이 디자인하여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든 것이다.

전시물 아래 나지막한 곳에 살포시 붙어 있는 작품 설명이 눈에 띈다.

“문신이 만들어 놓은 예술이라는 나무에 우리는 아트 상품이라는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 할 수 있게”

최 관장의 메시지다.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작품과 설명문을 찾아나갔다. 저만치 예쁜 도자기 컵과 받침이 보인다. 담백한 디자인과 따스한 컬러가 마음에 쏙 든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크리스마스가 되자 난 포인세티아와 퉁카벨을 그렸다. 하얀 꼬마 컵과 접시엔 크리스마스 초록 입 위로 눈이 내리고 있다. 시유이 주려고 당근 코가 있는 하얀 눈사람도 그렸다. 초록색 탄넬 바움엔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 ‘독일의 인상’이 걸려 있고, 그리운 브라운슈바이크의 크리스마스! 사랑스런 동생 내외와 아기가 있어서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곳.”

가슴이 뭉클해진다. 독일의 작은 도시 브라운슈바이크, 고풍스런 부르크 광장과 뽀족한 지붕을 얹은 게반트하우스가 있는 곳.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보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을까. 그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남달라 보인다.

그런데 컵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양과 돼지, 소, 호랑이 등, 가만히 보니 십이지(十二支)가 아닌가. 아무리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봐도 문신의 작품에 십이지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아트 상품으로 진화하며 환생

“우리는 한국인, 카톨릭 신자인 나지만 우리 민족 깊숙이 박혀 있는 십이지신에 대한 애정은 끝이 없다. 열두 동물을 신으로 여긴 우리네 민족의 마음이 어질고 따뜻해서 난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

역시 최 관장의 작품이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십이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03년 금호갤러리의 <최성숙 음악그림전>에서 바이올린·첼로·피아노·클라리넷의 주자로 사람 대신 용·뱀·닭·쥐 같은 십이지 동물들을 등장시켰다. 십이지가 음악을 만나고 서양을 만나서 진화하며 새로운 환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의 모티브와도 비슷하

다. 아트 상품은 예술가의 작품을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열 수 없게 하는 높은 가격 때문에 뮤지엄 숍의 구색을 맞추는 진열 상품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정경현 학예연구사는 “진열한 아트 상품은 전시를 마친 후 누구나 친근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품 하나하나에 스며든 부부의 지극한 사랑과 예술, 그리고 감동을 느껴보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127호

아랫넛 수룩재

글 한만선 / 사진 이상현



음악과 무용의 예술적 가치가 큰 한국의 전통 문화인 아랫넛수룩재가 6월 21일 창원 MBC경남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27호로 공식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공연이다.

아랫넛은 예부터 범패(불교의식음악)를 이어 온 스님들이 낙동강 동남쪽의 경상도지역을 아랫넛 소리라 하고, 서북쪽의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을 윗넛소리라 구분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날 공연에서 아랫넛수룩재 보존회 스님들은 다게작법무와 천수바라무를 시연하였고 안간문화재 이생강 명인은 대금산조로 화답하였다. 영산재 예능보유자 구해스님과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김영자 명창 등 국내 민간문화재들이 대거 참여해 아랫넛수룩재를 빛냈다.

수룩재는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 공양을 드리는 불교 의식이다.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크

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진관사에서 국행수룩재를 봉행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 중엽 이후 국행수룩재가 금지되면서 민간에 퍼졌고 불교문화가 성행했던 영남지방에 아랫넛 수룩재란 이름으로 전승 되었다.

수룩재 무형문화재 지정에 앞장서온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은 “수룩재는 가장 오래된 불교의례의 하나로 좁게는 개인과 나라의 안녕을, 넓게는 전 인류의 평안을 기원하는 평등대재이자 무차대회”라며 “수룩재에 수많은 콘텐츠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우리 현실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룩재에서 행해지는 불교 의식무는 불교와 예술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리로 이뤄진 범패에 춤과 연극이 더해진 것이 수룩재다. 웅장한 음악과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음색, 역동적이고 화려한 춤사위는 타지역에서 열리는 수룩재와 차이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소리를 내고 춤을 추는 스님들의 혼이 실린 덕분이다.

아랫넛수룩재 보존회장 석봉스님(백운사 주지)은 “신라 때부터 불교가 성행했던 영남지역의 불교의식과 그 음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영남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키는 일”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먹과 색으로 빛은 '김해 한국화'

김해미술문화연구회

글 한만선 / 사진 이상현



'김해 한국화'로 표현하는 <김해와 가야 문화> 전시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국립 김해박물관에서 열린다. 김해미술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김순태치과의원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김해의 자연을 담은 대형작품(100호)와 에스키스(밑그림)가 선보인다.

'김해 한국화'는 겸재 정선에서 시작된 진경산수(眞景山水)를 기반으로 한 수묵담채화(水墨淡彩畵)를 말한다. 일반 한국화와 다른 점은 진경을 추구하는 겸재의 화풍에서 출발한다. 요약하면 '실경(實景)을 제대로 표현한 한국화'란 뜻이다.

실제 자연을 그리지 못하면서 그 내용이나 정신을 품은 사의적(寫意的)인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김해미술문화연구회 문운식 이사장의 철학이다.

언젠가 한 박물관에서 겸재 정선의 인왕계색도(仁王霽色圖)를 본 기억이 떠오른다. 고희를 넘긴 정선이 윤5월 하순, 비 온 뒤의 인왕산 경치를 지금의 효자동 방면에서 보고 그렸다는 작품이다. 어슴푸레한 안개와 수목을 헤치고 우뚝 솟은 인왕산 바위가 선계(仙界)인 듯 느껴지는 그림이다. 나이든 화가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던 것 같다. 먹의 강렬한 흑백 대비도 그렇거니와 힘찬 붓질 역시 그랬다. 가히 진경산수의 백미란 극찬을 받을 만하다.

대중과 미술의 거리를 좁히다

김해 한국화는 진경산수에 색을 더하는 수묵담채화로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미리 엿

보았다. 아직 밑그림만 완성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절반쯤 채색을 한 작품도 보인다. 전부 김해의 자연을 담았다. 먹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색을 입은 그림이지만 모두 느낌이 다르다. 저마다 작가 특유의 개성이 물씬 풍긴다.

수채화 같은 가벼운 그림에서 오뉴월의 싱그러운 숲을 느끼고 서양화처럼 짙은 물감이 더한 그림에서 삶의 목직한 무게를 보았다. 사방으로 팔을 벌린 나무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자랑한다.

이선엽 사무국장은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김순태치과의원과 매칭 협약으로 성사된 이번 전시회는 레지던스 작가 10여 명의 열정이 담긴 '김해 한국화'를 선보일 것"이라며 "자연을 테마로 한 현장스케치의 중요성을 통해 한국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설립한 김해미술문화연구회는 김해시의 미술창작과 미술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진흥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신진작가 발굴과 지원, 미술창작 활동에 다양한 실험, 작품 제작 전시, 학술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대중과 미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교육원을 개설, 교양과정(찾아가는 미술여행, 현장 스케치)과 전문과정(기초 소묘와 드로잉, 누드 드로잉, 수채화, 유화, 한국화, 작품 연구)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아싸!

아싸 근로자합창단

열정과 꿈을 담은 아름다운 하모니

글 한만선 / 사진 이상현



‘오디션도 없다. 음치, 박치라도 상관없다.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아싸 근로자 합창단’의 입단조건(?)이다. 아싸근로자 합창단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란 뜻을 담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합창단은 지난 2011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으로 결성되었다. 창원단지 근로자와 가족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26명이 모여 첫발을 내딛은 합창단은 올해 3년째로 접어들면서 46명의 단원을 갖춘 창원 최대 근로자 합창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수요일 밤 7시, 합창단이 연습장소로 사용하는 창원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을 찾았다. 합창단 기획자 곽민경 씨와 지휘자 라승균 씨가

합창단을 소개했다.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낮에 직장에서 일하느라 피곤할텐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요. 다른 단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지휘자 라승균 씨는 충남 아산시립합창단에서 8년간 활동한 성악가 출신이다. 가업을 잇기 위해 창원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 창원의 유명 사진작가이며 창동예술촌 회장인 라상호씨가 그의 부친이다.

시립합창단 생활을 접었지만 음악에 대한 라 씨의 열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가 이끄는 아싸 근로자 합창단은 창립 첫해인 2011년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QWL 산업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같은 대회에서 연거푸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연을 양보하고 초청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가족합창단으로 발전 목표

전국에서 모인 쟁쟁한 근로자합창단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라 씨와 단원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매주 수요일 밤마다 2~3시간 이상 합창연습을 하고 연습이 부족한 파트는 별도 모임을 갖고 연습을 한다.

합창의 매력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설레게 하는 것일까.

“딱 꼬집어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떤 단원은 학창 시절의 애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어떤 단원은 무대에 설 때 느끼는 긴장감과 자부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단원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해요. 이러한 다양한 시연, 각각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원들을 늘 가까이에서 돌보는 곽민경 씨는 여럿이 모인 합창단인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



합창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소통이고 화합이며 예술이다.

“대부분의 단원들이 각각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일도 다르고 퇴근 시간도 차이가 있어 한데 모여 연습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늦게 연습하러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연습을 마치고 바로 회사로 돌아가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노래를 부르고 싶는데, 창원 외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겨 중도에 포기하는 단원도 있었죠. 한 여성 단원은 출산과 육아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실력이 뛰어난 분인데 본인도 많이 안타까워 했지요. 좋은 일도 있었죠. 합창단에서 벌써 두 커플이 탄생했거든요.”

밤이 깊어 가고 있지만 가족 같은, 아니 가족들이 모인 합창단의 노래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곡목은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 <Where Do I Begin>. 올 연말 무대에 선보일 노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을 기대해 본다.



01 정수예술촌 | 02 히말라얀아트갤러리 | 03 진주냉면 | 04 진주성

빛과 물의 도시, 진주 문화탐방을 떠나다

글 한만선 / 사진 이상현



01.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에 있는 정수예술촌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농촌 마을 어귀에 있어 주변이 온통 논이다.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은 폐교의 교실, 공방안으로 들어서는 미닫이문과 창틀까지 옛 것이 온전히 남아 있다. 이곳이 과거 학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 하다. 이 때문일까. 중년의 방문객에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일깨운다. 칠이 벗겨진 시멘트벽도 정감 있게 다가온다.

정수예술촌은 1994년 옛 정수초등학교가 폐교하자 경남의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 2002년부터 예인촌으로 바뀌었다. 천연염색과 퀼트, 한국화, 서양화, 도자기, 사진작가 등이 교실을 한 칸 내지 절반씩 나눠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넓은 들과 소통으로 빛는 예술 공간이다.

퀼트 작가 박윤숙은 한뫼한뫼 정성들인 바느질로 자연을 옮겨오고 천연염색가 조갑선은 따가운 햇살의 도움을 얻어 감물들인 곱디고운 천을 만든다. 빛을 담은 사진작가 김명성, 조선시대 고화의 거장 김성미 화가의 공방에도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의 사명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한 프랑스의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마음이 와닿는다.





02.

정수예술촌을 구경하고 진주시내로 들어서면 남강변의 히말라안아트갤러리를 만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팔의 네와르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네와르 건축양식은 세계적인 독창성을 인정받는 뛰어난 건축 기술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창호와 기둥의 소재도 흥미를 자아낸다. 히말라야 고산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버티운 아그랏(Agrat)이라는 돌처럼 단단한 나무가 사용되었다. 창호의 조각은 힌두교의 대표적인 범의 화신 비슈누를 비롯한 3억 3천의 신과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뤄져 정교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갤러리는 산악인 박정현 대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안나푸르나 남벽과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오른 유명 산악인. 20여 년간 사랑해 온 히말라야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2012년 8월 갤러리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갤러리는 히말라야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박 대장이 수년간 네팔에서 수집한 작품이 가득하다. 그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파탄과 박타풀, 카트만두의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비며 찾아낸 보물과도 같은 작품들이다.

독일 카빙박물관이 소장한 세계적인 목각장인 라디 삼 실파카의 작품과 2층과 3층에 설치하는 세계의 연결창도 볼 수 있다. 세계의 연결창은 전세계에서 중국엑스포 전시장과 갤러리 단 두 곳만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18세기 파탄지역 왕궁에서 나온 소품들과 3세기 전 말라왕조 시대의 고대 기둥, 가구 등 60여 점이 있다.



03.

가

금강산도 식후경. 눈을 채웠으면 이제는 배를 채워보자. 진주는 경상도 문화의 중심으로 '전라도에 전주가 있다면 경상도에는 진주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 맛이 뛰어난 지역이다. 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냉면이다. 냉면의 본고장 북한에서도 진주 냉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의 민속전통>이란 책을 보면 '랭면 가운데 제일로 일러주는 것이 평양랭면과 진주 냉면이었다'는 글이 있다. 1939년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에도 진주 냉면이 등장한다. 책에 일본인 교사가 진주를 떠나면서 앞으로 진주 냉면 맛을 보지 못하는 것에 한숨짓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진주 냉면은 맛으로 유명하다. 진주 냉면의 전통을 이어오는 '하연옥'은 전국에

가

널리 알려진 맛집이다. 만화가 허영만도 <식객>에서 이 식당의 독특한 요리법을 소개하였다.

하연옥 냉면의 가장 큰 특징은 육수와 육전이다. 풍성하고 싱싱한 해물에서 뽑은 육수와 고평으로 계란을 입힌 쇠고기를 기름에 부쳐 썰어낸 육전이 어우러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육수는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삼천포와 남해 등 인근의 멸치와 새우, 홍합, 바지락, 표고버섯, 다시마, 문어, 황태 등 각종 해산물을 우려낸다. 이중 멸치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육수를 다 뽑으면 달궈진 무쇠를 넣어 비린내를 제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육수는 15일간 숙성을 거쳐 손님에게 낸다. 쫄쫄한 면발은 외려 덤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다.



04.

진주성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산책하기 좋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찾기 수월하다. 성에 들어서면 마음이 정돈되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얻는다. 서울의 웅장한 경복궁에서 찾기 힘든 소박함 때문이 아닐까.

진주성년 경남도가 도내 관광지를 찾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남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진주성을 꼽았다. "이렇게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유적이 도심에 있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결코 흔치 않다"는 설명이었다.

진주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대파하였고 의기 논개는 축석루에서 왜장을 끌어내고 남강에 뛰어든 곳이다. 역사도 꽤 깊다. 백제 때부터 토성이 자리했고 고려말 공민왕 때부터 왜구와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진주성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야트막한 언덕에 있어 시원하게 특 트인 남강을 굽어 볼 수 있다. 성 안에는 다양한 수목이 잘 관리돼 있고 시원한 그늘도 많다. 축석루와 의기사, 영남포정사, 북장대, 창렬사, 호국사, 서장대, 임진대첩계사순의단, 국립진주박물관 등 볼거리도 수두룩하다.

어린 자녀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그림 책 읽어주는 박물관', '우리가족 공예가', '과학으로 보는 우리 문화재'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2014
경남
메세나
회원사
소개

(2014년 8월 기준)

기업(단체명)	대표자
회장 (주)학	회장 최재호
부회장	
기업(단체명)	대표자
熊경남도의회	위원장 임경숙
경남오페라단	단장 장찬희
(주)경한코리아	회장 이상연
(주)고려강강	대표이사 한철수
삼원테크(주)	대표이사 이택우
(주)센트랄	회장 강대룡
우주AMS(주)	회장 진종인
熊315아트센터	관장 도난실
기업(단체명)	대표자
감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청호산업개발(주)	회장 이동기
(주)ONE	대표이사 이종호
이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회장 이종일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신대호
경남에너지(주)	부사장 김만호
경남은행	본부장 황윤철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인호
공영뱅크(주)	대표이사 공경열
(주)고구려	대표이사 임재현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진국
리베라컨벤션	회장 김태영
법무법인 금강	대표변호사 김원태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신화철강(주)	대표이사 장현숙
원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조성제
(주)인산가	회장 김운세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김도기
한국민예총경남지회	지회장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공명철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김의수
(주)현대조	대표이사 마평수
화성O&A(주)	대표이사 김원철
(주)회영	대표이사 이흥원
(주)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영욱
the큰병원	행정원장 박창석
회원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가이EBS(주)	회장 정문홀
(주)강민종합건설	대표이사 백승훈
가제레미콘(주)	대표이사 윤원택
가제리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홍일
가제리컨벤션웨딩부페	대표 김솔
경남스탈(주)	대표이사 최충경
경남신문	회장 정충건
경원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김세민
고은치과병원	병원장 고철수
광복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광주
광신기계공업(주)	대표이사 권환주
(주)구구	대표이사 이재철
(주)국제전기	대표이사 황정봉
그림산업(주)	대표이사 장병홍
그림갤러리(주)	대표 임재봉
(합자)금강전기공업사	대표 양우석
금강중기	회장 손병철
금성(노텍)주	대표이사 진도열
금솔개발	대표이사 윤정환
(주)기산산업	대표이사 최주철
기산산업(주)	대표이사 임광택
김선경외과의원	원장 김선경
김순태치과의원	원장 김순태
김영사(공영)유	대표이사 김용하
낙우산업(주)	대표이사 이웅민
남평산업개발(주)	회장 이병열
(주)네오씨티알	대표이사 백낙림
(주)노키아티앤씨	대표이사 김기순
대경건설(주)	회장 이윤우
(주)대동주택	대표이사 권인환

기업(단체명)	대표자
대방스페셜스탈(주)	대표이사 김양규
대선주조(주)	대표이사 조용혁
대신금속(주)	대표이사 박수현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표 박기태
대우백화점	대표 이윤수
대한전선전기(주)	대표이사 신종철
(주)대호엘앤아이	대표이사 김중수
(주)덕광중공업	대표이사 이상석
동구기업	대표이사 류병현
동명다이아몬드	대표 강산규
동양특수금속(주)	대표이사 전말선
(주)동우프랜지	대표이사 최옥영
(주)동은화학	대표이사 박창원
동인하이텍(주)	대표이사 황도연
동환산업(주)	회장 고동환
두남화학	대표 김두선
디씨앤(주)	대표이사 정연택
디케이(주)	대표이사 노은식
리온건설(주)	대표이사 손정수
마산정안과	대표원장 정기윤
명성개발(주)	대표이사 이상원
명제한의원	원장 이동준
무림메이(주)	대표이사 김석만
문운수치과의원	원장 문운수
미르치과의원	원장 박 옥
미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우
미즈맘 여성병원	대표이사 이덕희
범한산업(주)	대표이사 정영식
(주)베스트엔드베스트	대표이사 서준호
(주)보강기업	대표이사 김경고
(주)부경	대표이사 김찬모
부산교통(주)	대표이사 조옥환
(주)부일이앤씨	대표이사 김 철
(주)복산산업	대표이사 박환병
비에이치아이(주)	대표이사 우종인
(주)사릭	대표이사 고재근
(주)산호수출포장	대표이사 최은수
(주)삼보산업	회장 윤병고
삼우금속공업(주)	회장 방호철
삼원동관(주)	대표이사 김갑수
(주)삼진건설	대표이사 정연문
삼정기업	사장 최정두
(주)삼정터빈	대표이사 정진욱
삼충열처리	대표 조보원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원장 이창열
(주)상화도장개발	대표이사 이년호
(주)상영시스템	대표이사 신완식
선린자모의원	원장 이상동
성부가스산업(주)	대표이사 박도일
(주)성우	대표이사 이상길
(주)성환금속	대표이사 윤성환
(주)세복	대표이사 김복기
(주)세양정공	대표이사 유병현
(주)세호테크	대표이사 강찬홍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현
승진기계(주)	대표이사 백구영
시영건설(주)	대표이사 조경용
시광에이스전기(주)	대표이사 김강민
신대양(주)	대표이사 박종춘
신동방산업(주)	대표이사 상대찬
신무트시스템(주)	대표이사 최상찬
(주)신우공업	회장 신용운
신창기계	대표 구자호
(주)신한물산	대표이사 조현민
(주)씨노텍	대표이사 김억곤
(주)에드테크	대표이사 박기용
(주)에스케이아이	대표이사 백화진
에스브이	대표이사 구윤희
영광산업(주)	대표이사 조우성
(주)영남엘피씨	대표이사 장원호
영민테크	회장 김민호
(주)영신화공	대표이사 강영전

기업(단체명)	대표자
(주)영일정공	대표이사 유병일
(주)영창기업	대표이사 이강대
에인여성병원	원장 정경효
(주)오곡산업	대표이사 윤종열
오션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경국
(주)옥산이앤티	대표이사 조동원
원 한의원	원장 원호영
원광산업석재	대표 이상섭
(주)웰컴	대표이사 박정우
유니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류재기
유림건설(주)	대표이사 노철호
(주)유림철강	대표이사 심재용
유진공업(주)	대표이사 류재기
윤한의원	원장 윤진구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사무국장 정지영
의료법인성림의료재단	이사장 이홍삼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사장 김인숙
(주)이삼사보이호텔	대표이사 홍충대
(주)이엔티	대표이사 박갑진
(주)이우	회장 최병철
인산죽염촌(주)	대표이사 최은아
인화정공(주)	대표이사 이인
일림-노텍(주)	회장 박홍찬
(주)일생도라지	대표이사 이영준
(주)장성도PS	대표이사 신종길
(주)정한	대표이사 장이근
경남종합건설(주)	회장 송한영
(주)정명에드테크	대표이사 윤수일
주용테크	대표 류신재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여불규
(주)중앙금속	대표이사 정영건
중앙종합건설(주)	회장 안권상
(주)지에스비	대표이사 이수부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유희경
(주)창원자동차위원회	대표이사 김진영
창이의료재단	이사장 최지영
초심공업(주)	대표이사 석현욱
쥬크루스화페인트(주)	대표이사 시미다기츠스케
(주)케이씨	대표이사 이장열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쿠쿠홈시스(주)	회장 구자신
대광실업(주)	회장 박용길
(주)태완정공	대표이사 박수완
(주)태원메가텍	대표이사 박병출
(주)포스텍	대표이사 조옥성
포스코텍수강(주)	대표이사 조노하
피케이밸브(주)	대표이사 박원근
하이에어코리아(주)	대표이사 김근배
한국남부발전허동본부	본부장 이근태
한국소니전자(주)	대표이사 김세현
(주)한국아나세	회장 우영준
(주)한국자연환경	대표이사 최충철
한국장기공업(주)	대표이사 류홍목
한국제강(주)	회장 하중식
한국태양유전(주)	대표이사 남필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하성용
해성메탈(주)	대표이사 손근환
해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보욱
(주)현대기업	대표이사 이호철
(주)호탈인터내셔널	회장 윤영호
흥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황동열
화이트치과	원장 이우근
화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복영
(주)회영	대표이사 손희현
(주)화인에이티씨	대표이사 윤상대
(주)황용전기	대표이사 한정규
(주)황용정공	사무이사 한석용
홍일기업(주)	회장 윤한성
PS엔터테인먼트	대표 최민선
STX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정성림
STX엔진(주)	대표이사 최인업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 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회원사 협력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형성 하고자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어울림과 소통전 : 기업을 그림에 담아 드립니다.

문화공간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을 제공합니다.

문화경영도서 : CEO를 위한 문화경영 관련 도서를 배부합니다.

지정기탁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문화 나눔사업 Sharing Art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지휘자 금난새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 A&B오케스트라 : 직장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예술이 흐르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대상 시행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COVER STORY



정수예술촌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에 있는 정수예술촌은 1994년 옛 정수초등학교가 폐교하자 경남의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 2002년부터 예인촌으로 바뀌었다. 천연염색과 퀼트, 한국화, 서양화, 도자기, 사진작가 등이 교실을 한 칸 내지 절반씩 나눠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넓은 들과 소통으로 빛나는 예술 공간이다.

